

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, '농지은행사업비' 1,490억원 투입

정재길 기자

승인 2025.03.09 22:59



[사진=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]

[한국영농신문 정재길 기자]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)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조기정착과,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 맞춤형 농지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에 올해 1,49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.

세부 사업별로는 ▲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,094억원, ▲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31억원, ▲선임대후매도사업 23억원, ▲농지규모화사업 80억원, ▲과원규모화사업 37억원, ▲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2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.

특히,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를 당초 2만 6,700 원/m²에서 44.2% 인상된 3만 8,500원/m²을 지원해 청년농업인들의 농지매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.

또한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하고,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'선임대 후매도' 사업에도 23억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.

정재길 기자 ynkiler@hanmail.net

<저작권자 © 한국영농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